

한국산 *Eriococcus*속(진딧물아목: 주머니각지벌레과) 2미기록종에 대하여

권기면, 한만종

농업과학기술원 농업해충과

한국산 주머니각지벌레속(*Eriococcus*)은 일본인 Machida와 Aoyama(1930)가 *E. lagerstroemiae* Kuwana, 1907(주머니각지벌레)를 처음으로 보고하였으며, Nakayama(1933)가 *E. Tokaetae* Kuwana, 1932(단풍주머니각지벌레)를, Kanda(1941)가 *E. onukii* Kuwana, 1902(대주머니각지벌레)를 보고하였다. 그 후 북한산 표본을 바탕으로 러시아인 Borchsenius(1956)가 *E. orientalis*를 신종으로 기재하였고, 1980년에는 Danzig가 *E. borchsenii* Danzig, 1975(쑥가시주머니각지벌레), *E. isacanthus* Danzig, 1975(조팝주머니각지벌레), *E. micracanthus* Danzig, 1975(꼬마주머니각지벌레) 그리고 *E. ulmarius* Danzig, 1975(발해주머니각지벌레) 4종을 기록하였는데, 이들 모두는 *Acanthococcus*속에서 combination 되었다.

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남 김해의 개밀(*Puccinellia maritima* (Huds.) Parl. (화본과))에서 채집한 *E. glyceriae* Green, 1921(풀주머니각지벌레(신칭))와 전북 완주의 콩(*Glycine soja* S. et Z. (콩과))에서 채집한 *E. sojae* Kuwana, 1917(콩주머니각지벌레(신칭)) 2종에 대해 보고한다. 풀주머니각지벌레의 암컷 성충은 몸 전체가 흰색 왁스에 덮여 있으며, 밝은 분홍색이고, 복부 등면 3~7째 마디의 가장자리에 1~3개의 끝이 잘려진 큰 센털이 있는 것과 밀조각에 3개의 끝이 잘려진 큰 센털이 있는 것으로 다른 종과 구분할 수 있다. 콩주머니각지벌레의 암컷 성충은 몸 전체가 연한 노랑색의 왁스에 덮여 있으며, 자주색이고, 복부 등면 전체에 뾰족한 큰 센털이 황으로 띠를 이루고, 밀조각에 뾰족한 3개의 센털이 있고, 더듬이 제 1마디가 가장 짧은 것으로 다른 종과 구분할 수 있다.

따라서 한국산 *Eriococcus*속은 2종이 추가되어 총 10종이 되며, 이들의 암컷 성충에 대한 검색표를 작성하여 종간에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.